



영암군 삼호읍 현대 삼호조선소 제1도크 대조립부 작업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던 중 넘어진 600t급 '지브(Jib)'크레인 등이 넘어져 조선소 야외작업장을 크게 파손. 전해가 어지럽게 널려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현대삼호중 크레인 전복 2명 사망

600t급 등 3대 설치하다 40m 아래로 추락

사고 1시간 30분 뒤 신고 '은폐' 의혹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선박 건조를 위한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 중 수백 t급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운전 기사 등 인부 2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1일 오후 2시20분께 영암군 영암읍 용당리 현대 삼호중공업 제1도크 대조립부 작업장에서 '지브(Jib)크레인'(고정식·600t급·높이 40m) 1대와 이동용 타워크레인 2대(300t·195t 각 1대) 등 크레인 3대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지브(Jib)크레인'을 운전하던 기사 양대열(36·복포시 옥암동)씨와 보조기사 신재관(33·목포시 옥암동)씨가 40m 아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해 인근 목포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195t급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지브

(Jib)크레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이들 크레인이 잇따라 넘어지면서 작업장을 덮쳤지만, 직원들이 지난달 28일부터 하계 휴가 중이어서 작업장만 크게 파손됐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원인=경찰은 이날 사고가 작업장에 설치된 고정식 '지브(Jib)크레인' 1대와 이동식 크레인 1대를 이용해 195t 타워 크레인을 들어올리던 중 지브크레인에 하중이 쏠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브크레인이 먼저 전복되면서, 다른 2대의 크레인도 잇따라 넘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수사=경찰은 ▲정격 하중(Capacity) 초과 여부 ▲작업 전 클러

치나 브레이크·컨트롤러 이상 유무 점검 여부 ▲작업 전 넘어짐 방지와 이어로프 고정 상태 등 확인 여부 ▲전복된 크레인의 설치 작업 부적절 여부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대 삼호중공업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

목포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관리공단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작업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현장 인부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은폐 의혹=삼호중공업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중상을 입은 양씨 등을 회사 측 차량을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또 사고 발생 1시간 30분 뒤

▲지브크레인(jib crane)=집(jib)이 달린 크레인인 수직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이 많아 선회(旋回) 크레인이라고도 하는데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나, 조선소에서 많이 쓰이며 수평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작업할 수 있다.

에 경찰에 신고해 사고에 대한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취재진을 포함한 외부인의 공장 출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한편 회사측은 크레인 붕괴로 상당 기간 작업 자질이 예상됐으나, 보조 크레인만 파손돼 작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영암=이중형기자 golee@

40대, 아들 등 어린이 6명 구하고 숨져

여수시 화정면 해변

40대 가장이 바다에 빠진 자신의 자녀 등 어린이 6명을 구하고 숨졌다. 1일 오후 3시16분께 여수시 화정면

자봉도 해변에서 김모(44·자영업·충북)씨가 실종된지 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자봉도 앞바다에서 물놀이하던 큰 아들

(13)과 작은 아들(12) 등 어린이 6명

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함께 온 친구 2명과 함께 이들을 구한 뒤 심한 조류에 휩쓸려 실종됐었다.

해경은 사고지점이 자봉도와 100여m 떨어진 무인도 사이 바다로 물흐르는 폭이 좁아 조류가 빠르고 밀물로 인해 김씨가 중심을 잡지 못해

조류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날 물놀이를 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파도에 밀려 20여m 때내려가면서 소리를 지르자 함께 온 강모(45·인천시)씨 등 어른 3명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지리산 횡단도로 또 사고

성삼재 4km하단... 일가족 4명 중경상

지난 5월 체험학습길 중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피서 여행 중인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경상을 입었다. 1일 오전 10시15분께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 횡단도로 성삼재 4km하단 지점에서 천은사 방향으로 내려오던 대구82아XXXX호 2.5t 트럭(운전자 지모·32·충남 계룡시)이 반대 차선에서 올라오던 05오XXXX호 그랜저(운전자 윤모·51·대구시 중구)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랜저에 타고 있던 윤씨 등 일가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사의 진술로 미뤄 페이드(fade) 현상으로 인한 제동장치 불능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지리산횡단도로의 집중 캠페인과 단속을 벌여 속도위반 900여 건과 안전띠 미착용 40여 건을 적발했다. 사고가 난 이날도 횡단도로 3곳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였지만, 속도위반 위반사태가 50건을 넘어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지리산횡단도로의 집중 캠페인과 단속을 벌여 속도위반 900여 건과 안전띠 미착용 40여 건을 적발했다. 사고가 난 이날도 횡단도로 3곳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였지만, 속도위반 위반사태가 50건을 넘어서다. /인헌주기자 ahj@kwangju.co.kr

탱크로리 전복 아스콘 12t 도로 덮어

순천 팔마체육관 앞길

1일 오후 2시16분께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전남98자25XX호(운전자 이모씨·33) 29t 탱크로리가 여수에서 벌교방면으로 좌회전하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 있던 아스팔트 재료인 '아스콘' 원

액 24t 중 절반 가량이 쏟아져 2차선 도로를 뒤덮는 바람에 30여 분 동안 여수~벌교 방면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사고가 나자 순천시청과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등이 출동해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양이 워낙 많아 모두 치워내는 데는 3~4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범죄자들 언론보도 뒤 수범 바뀌

석사학위 논문

상당수 범죄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뒤 범행수범을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서울경찰청 윤외출 강력계장이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범죄관련 언론보도와 범죄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낸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살인

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130명을 상대로 자신의 범죄가 언론에 보도된 뒤 반응을 묻은 결과 49명(37.7%)이 범행수범을 바꾸는 등의 행동변화를 보였다.

행동변화를 보인 범죄자 중 13.8%(18명)가 범행을 중단했으며 다음으로 ▲주거지에서 도주 11.5%(15명) ▲범행지역 이동 혹은 범행수범 바꾸기 각 6.2%(8명) 순이었다. /연행뉴스

전화 금융 사기범에게

'대포통장' 준 20대 검거

목포 경찰은 1일 전화금융 사기범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통장과 현금카드 등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정모(29·순천시 옥전동)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께 순천시 연향동 모 은행지점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통장과 현금 카드를 만들어주면 현금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 명의의 통장·현금카드 10개를 개설해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전화금융 사기범은 다음날인 12일 오전 11시 40분께 자영업자고모(59·목포시 상동)씨에게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명의가 도용됐으니 조치해 주겠다'고 속여 정씨 명의 통장으로 현금 280만원을 이체 받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나원침



다들 물어봐... 신발재! KCC

DS건설(주) KCC철도, 연세대에 대학

KCC항오, 시스텔항오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슬리본, 메인에 대학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프

이중섭 등 위작 감정위원 책임 없다



○(고)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위작(僞作) 여부를 놓고 소장자와 감정위원들간 소송이 소장자의 패소로 일단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규용)는 1일 '박수근·이중섭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 회장인 김모씨가 감정협회 최고 감정위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객관적·전문적인 감정으로 위작 판정을 내렸다면 진위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예술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김씨는 3년 전 이·박 화백의 미발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정협회가 이들 소장품에 대해 위작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연행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필수요약정리+문제풀이자료(7월, 8월) 기본서 특별반

개강 8월 1일

공인중개사전문 전국대표 1위

361-8111 529-8111

Space Communities 기업과정 추가 모집

Lab Manager 교육과정 추가 모집

062)502-7402-7 FAX 062)602-7404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합침선잠-조루-허리디스크

062)531-3636, 531-0700

523-4600, 011-9612-5530